

여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의병에 대한 종합적 학술 조사가 시행된다면 교재 제작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의병을 현장 교육 자료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역사 교사를 대상으로 단양 의병을 주제로 한 특별 연수가 필요하다. 아무리 역사 교사라 하더라도 단양 의병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교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단양교육청이 방학을 이용한 단기 연수과정을 만들어 교사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본고는 단양 출신 독립운동가 16명의 관련 유적지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활용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단양 출신 독립운동가 중 13명이 이 지역을 무대로 호좌의진이나 이강년 의진에서 참여하고 활동한 의병이다. 나머지 3명은 타지에서 다른 운동계열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따라서 단양의 독립운동가는 의병으로 단선화, 특성화하여 논의해도 무방할 듯하다.

현지 조사 결과, 단양에서 의병은 미지의 역사이고, 독립운동가는 잊힌 존재였음을 확인하였다. 설령 일부 기억하고 있다 하더라도 오류나 왜전이 적지 않으며, 기념하는 방식도 격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더구나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독립운동가의 유적이 많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러나 근대 유산이 빈약한 단양으로서 의병은 특화하여야 할 역사적 소재이다. 이를 위해 먼저 종합적인 학술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각종 문헌 조사를 통해 이 지역 출신 의병을 발굴하여 독립유공자로 포상하도록 하고, 현장 고증과 구술 청취를 통해 단양의 의병사를 정립하고 스토리텔링 소재를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는 적극 나서서 제천시와 의병의 역사와 정신을 현대적으로